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 40% 저조

지난해 분양률 90% 돌파에도 입주율은 평균 밑돌아 필지 71.8% 기업체 분양...입주율은 35.7%에 불과 미착공·미입주 차별 대응...기업 지원정책 강화 필요

조성 8년을 맞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 집적단지 분양률이 지난해 90%를 넘겼지만 정착 입주율은 40%에 머물며 전국 혁신도시 평균을 밑돌았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부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022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운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92.8%로, 2년 전인 2019년 말(81.5%)보다 11.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나주 분양률은 전국 9개 혁신도시 평균 분양률 73.0%를 웃돌았다.

같은 시기 강원과 경남, 제주 혁신도시는 이미 분양률 100%를 달성했다. 평균 분양률을 밀도는 도시는 충북(35.7%)과 경북(52.8%) 등 2곳이다. 부산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설정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미분양된 필지의 83.3%는 약 1500평(5000㎡) 이하 규모였다. 전국 혁신도시 평균 5000㎡ 이하 규모 미분양 필지 비율은 59%로, 나주 혁신도시는 소형 필지의 미분양이 두드러졌다. 미분양된 나머지 16.7%는 1만~3만㎡ 중형 규모였다.

나주 혁신도시 분양률은 지난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실제 입주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분양면적 38만5000㎡ 가운데 40.5%인 15만6000㎡(26필지)만 입주했다. 분양을 받고도 아직 입주하지 않은 땅 가운데 21만6000㎡(50필지)는 착공 전이었고 1만3000㎡(2필지)는 공사 중이었다.

나주 혁신도시 입주율은 9개 도시 평균 47.2%를 밑돌았다. 입주율 50%를 넘긴 도시는 대구(74.0%) 한 곳뿐이었다.

나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용지 10곳 중 7곳은 기업체가 가져갔지만, 실제 이 기업들의 입주율은 40%를 넘지 못했다.

나주 혁신도시 분양용지는 기업체의 수요가 다른 혁신도시보다 월등하게 많고 의료기관·병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필지 수 기준으로 나주 혁신도시 분양용지 수(受) 분양자의 71.8%는 기업체였다. 이는 전국 평균 비율(46%)을 훌쩍 넘었고 대구(7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기업체에 이어 지식산업센터 비율이 14.1%로 뒤를 이었고, 유관기관(9.0%) 대학(2.6%), 의료기

관·병원(1.3%), 행정기관(1.3%) 등 순이었다. 전국 혁신도시의 수분양자 평균 비율은 기업체 46%, 행정·유관기관 24%, 지식산업센터 24%, 의료기관·병원 5%, 대학 2% 등으로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 분양용지 10필지 중 7필지는 기업체 몫이었지만, 이들 가운데 분양받은 땅에 들어간 비율은 35.7%에 불과했다.

전국 혁신도시 평균 기업체 입주율은 61.5%였으며, 충북(100.0%), 대구(84.3%), 강원(50.0%) 순으로 입주율이 높았다.

나주 혁신도시 수분양자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은 27.3%로 전국 평균 23.9%를 웃돌았다. 이외 대학은 50.0%(평균 37.5%), 유관기관 14.3%(" 53.8%), 의료기관·병원 100.0%(" 16.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1년 새 137개 증가하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입주기업은 모두 447개로, 5곳 중 1곳(21.5%)은 수도권에서 옮겨왔다. 수도권 이전

비중은 전국 평균(13.7%)을 크게 웃돌았다.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모두 3804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10개 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운영모 위원은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도시별 용지 여건에 맞게 미착공·미입주에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연쇄 입주를 이끌 수 있는 선도(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나주 혁신도시는 미분양 용지보다 미착공 용지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초 생산요소나 기반 설비와 같은 전통적인 입지 요인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행·재정적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의무 구매 활성화 통한 지역기업 우대제도 실효성 제고 ▲기부채납 조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미분양용지 용도 전환 ▲클러스터 재투자 조건의 개발이익 환수 비율 상향 ▲필지 규모 조정(분할) 등도 대안으로 들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왼쪽 5번째)가 17일 장흥댐 물문화관에서 연 전남서남권 합숙소 담소@장흥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건립을 기념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수자원공사, 장흥에 지역 첫 합숙소 건립

내년 12월 준공 예정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에 전남서남권역 합숙소를 건립한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여본부는 17일 장흥댐 물문화관에서 전남서남권역 합숙소 '담소@장흥' 건립 사업 착공식(사진)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착공식에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 노철민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왕윤채 장흥군의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합숙소 '담소@장흥'은 수자원공사 구성원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이곳은 홀로 근무지에 이전하는 직원의 주거한

경 개선을 위해 지역에 최초로 건립하는 원룸형 합숙소이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총 40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면적 543㎡(164평),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며 총 10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

이 공간은 장흥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박재현 사장은 "장흥군, 목포시, 강진군 등 10개 지자체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맡겨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수자원공사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신보, 봉선시장 상인회와 협약 소상공인 지원 방안 적극 수립

광주신보보증재단(광주신보)은 최근 광주시 남구 봉선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과 정상호 봉선시장 상인회장, 이병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봉선시장 상인들의 가게 운영 때 애로사항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광주신보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이사장은 "현장 방문을 늘려 소상공인·지역업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정철 식품안전 특별점검 농협 전남검사국과 광양농협은 지난 16일 지역 하나로마트를 찾아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했다.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는 이달 10일부터 각 매장에서 김장재료 할인전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2. 약 4800평
3. 매매 - 16억 8천만원
4. 문의 . 010 - 3605 - 5000